

論 文

安東地方 典籍文化에 관한 研究

안동대학교 도서관
윤 동 원

< 목 차 >

1. 머리말
 - 1.1 연구방법
 - 1.2 연구자료
 - 1.3 연구의 제한점
2. 지방 기록 자료의 중요성
3. 안동의 지리와 사회문화
 - 3.1 안동의 지리적 배경
 - 3.2 안동의 사회문화적 배경
4. 안동지방의 특수성
5. 안동지방 전적문화고찰
 - 5.1 문헌상의 고찰
 - 5.2 책판목록상의 고찰
6. 조사된 전적의 분석
 - 6.1 주제별 분석
 - 6.2 간행 시대별 분석
 - 6.3 판본별 분석
 - 6.4 간행소별 분석
 - 6.5 간행지별 분석
7. 맺음말

1. 머리말

전적문화재는 우리나라 문화발달 과정과 그 역사적 배경의 근거 기록으로 국학 연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의 체계적인 조사와 조사된 전적의 분석은 의의 있는 학술문화 사업이라 하겠다. 국문학, 국사학, 서지학 등 한국학의 활발한 연구는 기본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목록의 간행 위에서 가능하다.

경북지방, 특히 그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유교 문화와 전통문화 사상 또는 양반계층문화가 가장 짙게 계승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고전적과 고문서류가 각처에 산재 소장되어 있다.

안동 지방에는 각 읍면마다 명문가가 세거하고 있으며, 그들 조상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숭조사상(崇祖思想)과 제반 문화적 의식이 강한 호문거족(豪門巨族)이 많아 이들 가문에는 많은 전적이 소장되어 있다.

선조의 전적이 세대별로 잘 보존되고 있는 가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조상의 누대 전적이 보존된 이래 화재(火災)나 병란(兵亂)을 직접 당한 적이 없어야 했다. 3-4세기 동안 그러한 재난을 당하지 않고 장구한 세월 동안 무사히 전승해 온 종가는 그리 흔치 않다.

둘째, 귀중한 전적을 보존해 오는 데는 일정한 가세(家勢)가 유지되어야 했다. 그 가세란 일정한 재산과 벼슬 및 가학(家學)의 지속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귀중한 전적의 유무와 보존여부는 대체로 그 가문의 형세와 후손의 성쇠와 비례하였다.

셋째, 주거지를 옮기지 않고 선조가 계승한 세거지 또는 새 터전을 잡은 이래 계속 수 백 년 동안 한 마을에서 살아온 종가이어야 전적이 많이 보존될 수 있었다.

안동지방에 소장된 대부분의 전적은 퇴계학에 근거한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다른 지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전적이 종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갖은 어려움과 가난을 무릅쓰고 오로지 독서(讀書), 저서(著書), 간서(刊書)에 주력한 나머지 방대한 문헌자료를 후세에 남기게 되었다.

1.1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성격상 목록집에 의해 진행되므로 문헌연구에 의한다. 이에 관한 목록으로는 1984년부터 문화재관리국이 연차사업으로 각지에 산재한 전적 및 고문서를 지역별, 소장자별로 나누어 조사한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있다. 그 중 안동시·군편은 문화재관리국이 1983~4년 3차례에 걸쳐 단편적으로 조사한 것과,

1986년 안동대학교 김세한 교수팀과 6개월에 걸쳐 합동으로 조사한 것을 묶어 1991년 편찬한 것이다. 당시 조사된 내용은 전적 30,467종, 고문서 2,695점을 합해 33,162점이다. 이 책에는 안동지방 98명이 소장한 전적과 고문서의 목록이 소장지별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다.¹⁾ 그 내용은 <표 1> 과 같다.

<표 1> 안동시·군별 전적종합조사통계표

전적소재지	조사내용현황			비고
	전적	고문서	합계	
안동시	2,891	54	2,945	
서후면	3,047	1,842	4,889	
도산면	3,087		3,087	
예안면	2,581	18	2,599	
와룡면	2,665	80	2,745	
임동면	4,801	128	4,929	
길안면	708	7	715	
풍천면	6,579	487	7,066	
임하면	2,502		2,502	
풍산면	503	42	545	
북후면	219	9	228	
남후면	1		1	
일직면	302	17	319	
녹전면	581	11	592	
합계	30,467	2,695	33,162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제5권의 1, 2에 수록된 안동시·군편의 내용을 주제별, 시대별, 판본별, 간행소별, 간행지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자료

안동지방을 대상으로 조사된 전적목록으로는 저자가 편찬한 『안동대학도서관 소장 고서목록(1-2)』, 유일곤(柳侁坤)이 편찬한 『안동사적요람(安東史蹟要覽)』²⁾, 안동대학박물관이 편찬한 『임하댐 수몰지역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臨河댐 수

1) 金世漢 著, 『漢文學散藁 - 附 安東市·郡 個人所藏 典籍目錄-』, 안동대학교 출판부, 1991. pp.470-473

沒地域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³⁾, 송지향이 편찬한 『안동향토지』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편찬한 『국학자료목록집(2002, 2003(향산고택, 재령이씨 영해파 증가), 2004, 2005(풍산류씨하회마을 화경당), 2006(의성김씨천전파문중)』, 『永川李氏龕巖宗宅古典籍』, 『귀중본 자료집(2003)』 등이 있다. 안동지방의 책판목록으로는 2005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출판된 『경북지역의 목판자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된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제5권 1, 2의 안동시·군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조사대상 자료는 1910년 이전 전적을 주 대상으로 해서 일제시대의 신연활자본이나 석인본이 누락되어 있다.

둘째, 주자본과 목활자본은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일제 초기의 개인문집류의 목활자본이라도 제외된 것이 있다. 목판본의 사서삼경 중 후쇄본도 제외되었다.

셋째, 칠서(七書), 통감(通鑑), 강목(綱目), 고문진보(古文眞寶), 당송시문류(唐宋詩文類) 등의 필사본은 조사에서 누락되었다.

또한 서원이나 가문의 유물각 등에 소장된 기록 자료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이 안동시·군의 98명만이 수록되어 있어 누락된 곳이 많다. 이것은 서지 목록집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전적의 내용 및 성격과약을 통한 가문의 독자적인 경향성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지방 기록 자료의 중요성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국가체제를 견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구조는 중앙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지방의 독자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는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힘들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중앙과

2) 柳侑坤 編著, 『安東史蹟要覽(第1輯)』, [발행처미상], 1983. p.115

3) 1986년 임하담 수물지구를 대상으로 안동대박물관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304종의 전적 목록이 수록되어있다

4) 상권 제8절 文獻에 보면 「안동출신인사 저서목록」에 404종이 수록되어 있다.

대비되는 지방적 요소가 싹틀 여지는 있었다.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분국체제는 국가단위의 차별성을 통한 지역적 분화를 가능하게 했고, 그것은 삼국이 통일된 이후에도 불식되지 않았다. 신하 하대 호족의 등장과 함께 후삼국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현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고려왕조나 조선왕조가 중앙의 권력집중화를 통한 전체군주 국가체제를 유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모든 부분의 중앙 집중의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고려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존속했던 속현은 행정적으로는 주현에 소속되어 형식상의 중앙집권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앙 관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고려왕조의 통치구조가 관료체제보다는 지방에 기반을 둔 문벌귀족의 연립체제의 형태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한 현상은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관료정치에 입각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에 의해 중앙과는 별개의 독자적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들은 지방에서 사회, 경제적인 토대의 구축을 통해 재지적(在地的)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왕조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의 연구에 매진하여 그것의 현실적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도덕성과 명분을 갖춘 군자의 국가지배를 지향하는 도학정치의 정치개혁과 함께, 조세체계의 개선과 토지 재 배분 문제 등 각종 사회, 경제적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선 전기 군역의 개선을 위한 영역변동이 수시로 행해지고 과전법 체계가 직전법 또는 관수관급제로 변화하는 양상은 그들의 요구가 일정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사림의 개혁성향은 일차적으로 중앙의 정치무대에서 그들의 경륜을 펼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이지만, 왕권을 배경으로 권력을 집중시킨 훈구, 척신 세력의 경제력 확대추세로 인해 파생되는 재지적 기반의 축소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 진출을 통한 적극적인 개혁의지는 훈척세력의 반발에 부닥쳐 실현될 수 없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사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피화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중앙으로 진출하기에 앞서 지방을 무대로 세력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다.

선조 대부터 본격적으로 확립되는 사림정치는 소수 특정집단의 권력독점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현상이 중앙에 집중된 반작용의 소산이었다.

지방의 사림들은 서원, 사우 건립 운동을 전개하며 그들의 학맥과 연관된 인물들을 제향 함으로서 재생산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상호 연대를 통한 결집의 발판을 마련해 나갔다. 특히 각지에 설립된 향교가 관주도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비

해, 서원, 사우는 지방사립의 자발적 공론에 의해 건립되고 운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치적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다. 더욱이 향교의 문묘에는 중국 및 한국의 현철들이 함께 제향된 것과는 달리, 여기에는 한국인으로서 지방과 연고가 있는 선현만을 제향 함으로서 중국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한국적이자 지방적 색채가 농후한 세계관 및 현실관을 함축하고 있기도 했다.

경북 북부를 포함하는 조선시대 영남지방 유교문화는 이 지역 출신인 정몽주, 길재의 도통을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사립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전통적으로 영남 사립들 사이에서는 학맥을 연결시킴에 있어 학통보다는 도통을 우선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의식에는 성리학을 도학과 일치시키려는 중국의 관행과는 달리 그것들을 개념상으로 구분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이치에 대해 해박한 성리학적 지식인파, 그것을 토대로 한 인품의 수양과 도덕적 행동을 지향하는 도학적 지식인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어 있었다.

경북 북부지방 개인 또는 문중에 소장된 대부분의 기록 자료는 퇴계학에 근거한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은 것이다. 물론 그에 앞서서 기록 자료도 없지 않으나 퇴계학의 선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구분이 필요할 정도의 별개의 성격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 북부지방의 문화가 여타 지방문화와 비교되는 독자성이 확보되는 것이며, 이 지방에 온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적 및 문서 등의 기록 자료도 이러한 범주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지방에 삶의 토대를 구축하였던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이 일정한 규정성을 갖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문화에 대한 이해가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경북 북부지방에는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다른 지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정도의 기록 자료가 증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이 지방이 퇴계학의 적통이자 '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는 자부심을 견지하며 산업화가 곧 전통의 해체라는 일반화된 도식에 편승하기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가장 큰 작용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통적인 신분질서의 해체양상에도 불구하고 그 관행을 유지하며 조상을 매개로 사회적 권위를 유지하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지방의 각 문중에 소장된 고서, 고문서, 책판 등의 기록자료 중 국보로 지정된 것 2종을 비롯해, 보물 25종, 시도유형문화재 16종, 중요민속자료 1종, 문화재자료 1종 등이 지정되어 있다. 이는 이 지방의 기

록 자료가 다른 지방의 그것에 비해 희소적 가치와 함께 학술적 의미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안동의 지리와 사회문화

3.1 안동의 지리적 배경

안동 지방이라 하면 안동을 비롯한 인접해 있는 지역들 곧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영주, 예천 등지를 두루 포함할 수 있다. 안동은 경상북도 정중앙에서 약간 북으로 치우쳐 있으나, 경상북도 중심부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안동은 낙동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곳으로서 낙동강 유역의 선사 문화 중에서 상류 지역의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지리적으로는 북으로 소백산맥이, 동으로는 태백산맥이 막혀 있어 한반도의 중부와 남부, 그리고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두 경계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부의 문화가 영남으로 내려오거나 영남의 문화가 중부로 올라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량적인 곳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 유통의 중심지라 하겠다. 태백 이동(以東)의 문화와 이서(以西)의 문화 유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는 안동 지방, 더 나아가서 경북 북부지역의 문화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게 하는 요인인 것이다.

안동의 지형은 일종의 화강암 침식분지를 이루어, 시의 경계부는 산지로 되어 있고 중앙은 침식된 저산성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다. 시의 북서부를 따라 보문산, 학가산, 불로봉, 봉수산을 연결하는 일련의 편마암계 산맥이 형성되어 영주분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시의 동남부는 화강암과 신라통의 지질경계부를 따라 형성된 500~600m의 분수령에 의해 시 경계를 이루고 있다. 대략 반변천을 경계로 북부 지역은 화강암 지대로 사질 토양이며, 남부 지역은 혈암의 신라통 지역으로 점토질이 풍부한 토양이 형성되어 있다. 하천은 낙동강의 본류가 시의 중앙부를 남류하면서 작은 지류인 운혜천을 합치고 시내에 들어와 반변천, 길안천을 합류하여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흐른다. 시내의 서부지역을 지나면서 미천, 송야천 등의 지류를 합치게 된다. 시의 동부는 낙동강을 따라 양안에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나타나며 특히 북서부의 풍산평야는 시의 최대 평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호수로는 안동호, 임하호를 비롯하여 만운지(晩雲池), 여자지(女子池) 등이 있어 관계용수를 공급해 준다, 기후는 내륙 분지형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어 한서(寒暑)의 차가 심하다.

3.2 안동의 사회문화적 배경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인간이 살기 적당한 곳으로서 흔히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구비한 장소를 첫째로 꼽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은 겨울철의 강한 북서 계절풍을 막을 수 있고 아울러 사회경제적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활유지상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상업이 발달하는 지방은 사람이 들끓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인간이 문화를 형성하고 발달시키자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금을 통하여 변치 않는 경향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조선왕조의 사대부(士大夫)들이 문장(文章)의 기록이나 말로는 청빈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분재기(分財記)를 비롯한 각종 문헌을 통해 연구된 최근 학계의 업적을 통해서 보면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⁵⁾.

그 이유는 그들이 중시하는 유교(儒敎) 도덕을 실천하자면 관혼상제(冠婚喪祭)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사대부 가문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러한 자연적 환경과 경제적 조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덕인지 일찍부터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한 자취를 확인할 수 있으니 유교문화가 제대로 형성되기 이전부터 선사시대의 문화 흔적과 그 뒤의 서민 문화 및 불교문화의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4. 안동 지방의 특수성

경북 북부지역 특히 안동 지방이 다른 지방에 비해 방대한 전적을 보존하게 된 이면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5) 李樹健 著,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pp.44-183

영남지역 특히 경북일대는 한국사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후삼국 이래 정치적 중심은 한반도의 중부지역으로 북상했으나 14세기 말부터는 영남출신이 경제와 학계를 주도하면서 조선왕조는 특히 안동지방을 ‘인재의 고장’ 또는 ‘동방 유학의 발상지’라 하여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朝鮮人才 半在嶺南’, ‘嶺南人才 半在安東’이란 속어가 나오게 되었다. 신라문화가 한국전통문화의 주류를 차지하면서 유교, 불교기타 토속문화도 이곳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안동 지방은 골짜기 마다 토성(土姓)이 엉켜져서 고래 이래 토착세력을 대표했던 향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역대의 정치, 사회지배 세력인 양반관료 및 학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했다.

한국의 고대문화를 총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도 모두 영남출신의 유학자와 고승에 의해서 편찬되었다. 주자학이 전래하여 발전시킨 주체도 안동 지방에서 배출되었으며, 기호학과에 맞서는 영남학파의 주류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안동을 위시한 경북 북부지역은 타 지방에 비해 재지사족(在地土族)이 형성,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경제적 기반도 갖추고 있다. 16세기 초부터 왜구의 침입이 종식되면서 국가의 권농정책과 적극적인 주민 안집책(按集策)에 의하여 산간벽지가 새로 개간되고 농경기능의 발전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안동 지방은 그 지세 상 농경지와 산지가 교착하여 있으며, 태백, 소백산맥과 추풍령 등 산악이 서·북쪽에 병립하고 그 사이에 낙동강이 흐르면서 상류와 중류 지역 및 연결되어 있는 대소지류와 산간계곡을 따라 재지사족들의 주거지와 농장이 개설되었다.

안동 재지사족들은 중소지주였으므로 비록 평원 평야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농지획득 욕을 충족시키는 데는 별 부족함이 없었다. 한편 안동 지방은 피병(避兵), 피란(避亂)하는데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한발이나 수재(水災)를 동시에 최소화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문을 닦고 유한(幽閑)한 정경을 좋아하는 사림파의 기우(氣宇)와 성향에 부합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산간벽지는 대개 배산임수(背山臨水)하여 농산물과 연료 및 부식물인 어류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잇점이 있었다. 외관상 이러한 거주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관아와의 거리가 멀다는데서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선왕조 당시 재지사족의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외노비가 있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는 쉽게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며, 관부와 떨어져 있는 것도 그들에게 관권의 감시와 관리의 침학(侵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북 지방

특이 안동 지방의 사족들은 바로 이러한 위치를 택하여 태백, 소백산록 등지에 집성촌을 형성함이 많았다.

고전적이 보존된 곳은 바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전통적인 재지사족의 동족취락이었다. 특히 안동 지방은 사족취락의 본거지로서 태백, 소백산 밑은 임진왜란의 피해가 적었다고 보이며, 인진왜란 이전의 고전적이 다수 보존될 수 있었다. 즉, 퇴계 선생의 세거지인 예안의 은혜(溫惠)와 토계(土溪), 농암(農巖) 이현보(李賢輔) 선생과 운암(雲巖) 김연(金緣) 선생 가문의 세거지인 예안의 분천(汾川)과 오천(烏川),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류성룡(柳成龍) 선생 가문과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선생 가문의 하회(河回), 천전(川前), 금계(金溪) 등 여타 군소 사족부락의 대소종가나 고가에는 으레 그들 선조의 수택본, 내사본 또는 세대별 고문서가 보존되어 있기 마련이다.

현재까지 선조의 손때가 묻은 고서, 고본과 고문서를 보존해 온 곳은 이와 같은 명현들의 종가들이었다. 이와함께 문중 또는 향중 유림이 공동관리하고 있는 재실·사당·묘우(廟宇)·향교·정사(精舍)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종가에는 그 선조의 서원과 관계된 유적관계 전적이 함께 소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안동 하회동 류영하씨 덕에는 병산서원의 고전적이 보존되어 있음과 같이 안동의 고가 세족의 정각, 재실 등 문중소유의 공청에는 상당수의 족보를 위시한 보판, 문집목판, 기타 고전적 및 고문서가 비공개된 것이 보관되어 있으나 도난과 유실의 허점을 안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행정적인 배려가 아쉬운 실정이나, 지금은 그나마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관된 자료들이 많아 다행이다.

5. 안동지방 전적문화 고찰

5.1 문헌상의 고찰

우리나라에서 서적이 존재했던 것은 “고구려에 『오경(五經)』과 『삼사(三史)』와 『삼국지(三國志)』가 있다”라는 『북사(北史)』의 기록과 백제 고이왕 51(284)년에 일본으로 서적을 보내준 사실⁶⁾을 밝히는 몇 가지 역사적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인쇄출판 문화정책에 있어서 중앙 집중화 방식을 채택하였던 고려시대에 서적

6) 增補文獻備考 藝文考, 歷代書籍條, 總論

이 간행된 지방은 경주, 충주, 해주, 성주, 남원, 평양, 진주, 진주, 안동 등으로 간행지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인쇄출판 정책 하에서도 안동에서 서적을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부터 안동은 인쇄출판문화에 있어서 선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에 안동에서 편찬된 전적을 살펴보면, 최해(崔滄)가 편찬한 『동인지문(東人之文)』이 충숙왕 7(1355)년 안동에서 개판(開板)되었고⁷⁾,

『조선왕조실록』에서 안동에서 서적을 출판한 사실을 살펴보면, 『주문공집』 32권,⁸⁾ 『음주자치통감(音註資治通鑑)』 9권,⁹⁾ 『동파대전문집(東坡大全文集)』 10건(件),¹⁰⁾ 『안동풍속(安東風俗)』,¹¹⁾ 『시경』·『주역』·『서경』,¹²⁾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¹³⁾ 등이 있다.

그 외에 안동에서 출판된 전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각도책판목록에서는 『성리대전(性理大全)』, 『신촌집(愼村集)』, 『사자천자(四字千字)』, 『설곡집(雪谷集)』, 『유향설원(劉向說苑)』, 『상락백행록(上洛伯行錄)』, 『삼봉집(三峯集)』, 『농상집촬(農桑集撮)』 등이 있다.

사찰판으로는 『대화엄일승법계도(大華嚴一乘法界圖)』,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월인석보(月印釋譜)』, 『몽산화상육도진설(蒙山和尚六道普說)』, 『금강반야바라밀경변상(金剛般若波羅密經變相)』,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청문(請文)』, 『불설천지팔양신주경(佛說天地八陽神呪經)』, 『기신론소필삭기(起信論疏筆削記)』, 『사분계본여석(四分戒本如釋)』, 『허백당문집(許白堂文集)』, 『청음집(淸陰集)』 등이 있다.

7)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동인지문(東人之文)』 권10-12의 권말에 “至正十五年 乙未正月 日 福州官改板…”

8) 세종 11년(1429) 6월27일(임인)

9) 세종 17년(1435) 4월5일(병오)

10) 세조 14년(1468) 6월27일(을묘)

11) 성종 4년(1473) 3월6일(병신)

12) 인조 26년(1648) 9월27일(무자)

13) 영조 9년(1733) 11월19일(병신)

14) 金斗鍾 著, 『韓國古印刷技術史』, 探求堂, 1981.

관판으로는 『훈의소학대전(訓義小學大全)』, 『문의통고(問義通攷)』, 『선부(選賦)』, 『통감절요(通鑑節要)』, 『백씨문집(白氏文集)』, 『정암집(靜巖集)』, 『약포문집(藥圃文集)』, 『농암집(農巖集)』, 『소학언해(小學諺解)』 등이 있다

서원판으로는 『교남빈흥록(嶠南賓興錄)』, 『계몽전의(啓蒙傳疑)』, 『퇴계선생언행록(退溪先生言行錄)』, 『송재집(松齋集)』, 『월천문집(月川文集)』, 『회곡진학도(晦谷進學圖)』, 『주서강록간보(朱書講錄刊補)』, 『보백당성생실기(寶白堂先生實記)』, 『경당집(敬堂集)』, 『징비록(懲毖錄)』, 『충재문집(沖齋文集)』 등이 있다.

사가판(私家板)으로는 『겸암일고(謙菴逸稿)』가 있다.

5.2 책판목록상의 고찰

안동지방의 인쇄출판 상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각도책판목록(各道冊板目錄)』¹⁵⁾, 『경상책판목록(慶尙冊板目錄)』¹⁶⁾, 『고사촬요(攷事撮要)』¹⁷⁾, 『고서책판유재고(古書冊板有在攷)』¹⁸⁾, 『고서책판유처고(古書冊板有處攷)』¹⁹⁾, 『교남책록(嶠南冊錄)』²⁰⁾, 『누판고(鑊板考)』²¹⁾, 『삼남제자백가책판소재주현기(三

15) 1840(현종 6)년에 간행된 책판목록이다. 1책 34장이다. 필사본으로 전국 각지에 소장된 책판을 조사하여 편찬한 목록이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황해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의 7도에 산재한 491종의 책판이 일정한 체계 없이 각 지역별로 열거되어 있으며, 함경도의 것은 없다. 이 목록은 1796(정조 20)년에 서유구(徐有榘)가 편찬한 『누판고(鑊板考)』와 같은 책판목록이면서도, 전국의 책판을 사부분류법으로 편성하고 있는 점과는 다르다.

16) 1948년에 필사된 사본(寫本)이다. 1책 15장으로 이병기(李秉岐) 집에 소장되어 있다.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지방의 판본 21개 지역의 책판(冊板)을 기록하고 있다.

17) 명종 9(1554)년 어숙권(魚叔權)이 편찬한 유서(類書)로서 임진왜란 이전 판본이다. 권하(卷下)의 “팔도정도(八道程途)”에 책판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책판목록은 조선 최초의 도서 목록이다. 때문에 임진왜란 이전 각 지방에서 발간된 도서의 간행지와 간행 연도를 추정하고 산일(散佚)된 도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18) 천혜봉 교수의 해제에 따르면 『해동지지(海東地誌)(寫本)』 중에서 경기, 충청 전라, 강원, 황해, 함경도 등 6개도의 책판을 전재(轉載)하고 또 경상도의 책판은 『영남책판기(嶺南冊板記)(가칭)』에서 전재한 것을 편집한 것이라 한다.

19) 편자미상으로 『해동지지(海東地誌)』 속에서 책판만을 기록한 것을 추려서 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동지지』는 표암(豹庵) 강세황(姜世晃)이 죽은 영조 52(1776)년 이전에 편찬된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 책판의 성립은 그 때를 전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천혜봉 교수의 해제에 따르면 성대중(成大中)의 구장목록(舊藏目錄)이라 한다. 그 성립은 정조 7(1783)년으로 생각되며 『누판고』와의 비교에 도움이 된다.

21) 정조의 명으로 서유구(徐有榘)가 편찬한 것으로 서울의 관아와 팔도 감영과 각 부(府), 목(牧), 현(縣), 서원(書院), 사찰(寺刹), 사가(私家)에 장치(藏置)되어 있던 책판을 조사한 것

南諸子百家冊板所在州縣記』²²⁾, 『삼남책판(三南冊板)』²³⁾, 『서책목록(경상도)(書冊目錄(慶尙道))』²⁴⁾, 『서책치부(書冊置簿)』²⁵⁾, 『소수서원서책목록(紹修書院書冊目錄)』²⁶⁾, 『양남책판(嶺南冊板)』²⁷⁾, 『영호열읍소재책판목록(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²⁸⁾, 『제도책판목록(諸道冊板目錄)』²⁹⁾, 『전국사찰소장목판본(全國寺刹所藏木板本)』³⁰⁾, 『책판치부책(冊版置簿冊)』³¹⁾, 『한국고서년표자료(韓國古書年表資料)』³²⁾,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³³⁾ 등이 있으며,

이다. 각도의 책판소재가 정확하며, 간략한 대장경목록을 제외하면 매우 정밀한 서지(書誌)이기도 하다.

- 22) 류탁일(柳鐸一) 교수의 해제에 따르면 「어록해(語錄解)」의 책 끝에 부기(附記)하여 필사한 것 같다. 전라, 충청, 경상도의 책판을 기록한 것이다.
- 23) 편자미상의 사본(寫本)으로 1책 20장이다. 전라, 충청, 경상도 등 3도의 책판목록으로 영조 19(1743)년 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청도 중에는 경상도의 선산, 용궁, 영천 분(分)이 오기(誤記)되어 들어있고, 경상도 중에는 『동경지(東京誌)』의 책판을 중복하여 추기(追記)하고 있다.
- 24) 사본(寫本)으로 1帖 21折로 경상도의 책판목록이다. 영상(營上)과 각 읍소재로 2분하였다. 안춘근(安春根) 장본(藏本)으로 채록(採錄)한 것을 원본을 직접 필사한 교감본(校勘本)이다.
- 25) 류탁일(柳鐸一) 교수에 의하면 이담명(李聃命)의 수택본(手澤本)인 첩본(帖本 : 36折本)으로 경상도 지방의 책판목록이다.
- (26) 소화(昭和) 20(1945)년에 간행된 필사본으로 1책 4장이다. 소수서원의 서책목록 제4장에 「책판현존(冊板現存)」이라 하여 추원록(追遠錄) 등 14종의 책판이 기록되어 있다.
- 27) 강주진(姜周鎭)의 해제에 의하면 사본(寫本)으로 된 경상도의 책판목록이다. 고령에는 예안(禮安) 것이 오기(誤記)되어 있다. 이 책에는 「가중소저(家中所貯 : 28종의 所藏冊)」와 「진성이씨상계과호보(眞城李氏上溪派號譜)」가 부기(附記)되어 있다.
- 28) 강전섭(姜銓燮)에 따르면 경상, 전라 양도의 책판목록이다. 전라도에는 통영(統營)이 오입(誤入)되어 있다. 이 책은 정조 17(1793)년경에 성립된 것으로 믿어지는 「영우병마절도촬요(嶺右兵馬節度撮要)」라는 사본(寫本) 1책(101장) 중에서 14장이나 되는 양으로 필사(筆寫)되어 있다.
- 29) 영조 25(175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이다. 1책(34장)으로 전라, 충청, 경상, 함경도 등 4도의 책판목록이다.
- 30) 1979년부터 6년 동안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찰소장 목판본을 조사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각도별, 각 사찰별로 수록하였다.
- 31) 영조 16(1740)년경에 필사한 사본(寫本)으로 1책(137장)이다. 전라, 경상, 함경, 강원, 황해, 경기, 충청도 등 7개도의 지역별 책판목록이다.
- 32) 윤병태(尹炳泰) 교수가 편찬한 책으로 우리나라 고전적의 표제지(標題紙), 내사기(內賜記), 간기(刊記), 인출기(印出記), 서발문(序跋文) 중에서 일부를 1910년까지 연대순으로 배열한 책이다. 각 권말에는 간지(干支)만 알려져 있는 것, 간지(刊地)만 알려진 것도 따로 붙여 있다. 책판의 소장처(所藏處), 간년(刊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책판목록의 본문

지지(地誌)류 로는 다음과 같다.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34, 『경상북도안동군읍지(慶尙北道安東郡邑誌)』 35, 『교남지(嶠南誌)』 36, 『예안현읍지(禮安縣邑誌)』 37, 『해동지지(海東地誌)』 38 등이 있다. 이를 토대로 안동지방에서 출판되었던 판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안동지방 책판 목록

서명	판본종수	비고
各道冊板目錄	안동 41	
慶尙冊板目錄	예안 13	
古書冊板有處攷	안동 20	
三南冊板	예안 12, 안동 10	
書冊目錄(慶尙道)	안동 39, 예안 25	
嶺南冊板	안동 27, 예안 5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안동 16, 예안 7	
諸道冊板目錄	예안 15, 안동 16	
冊版置簿冊	예안 18, 안동 30	
慶尙道邑誌	안동 33, 예안 31	
慶尙北道安東郡邑誌	안동 33	
嶠南誌	안동 38, 예안 37	
禮安縣邑誌	예안 31	
海東地誌	안동 5	
	502	

중에 *표시를 하여 부기(附記)하고 있다.

- 33) 조선 후기의 학자 김휴(金休)가 편찬한 해제 서목이다. 1책 필사본으로 먼저 여러 차례의 사화(史禍)와 전란을 면한 낙동강 부근의 봉화, 영주, 문경, 예천, 예안, 영양, 안동, 상주, 의성, 군위, 구미 등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34) 경상도 71읍의 지지(地誌)를 합편한 것이다. 사본(寫本)으로 71권 20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읍지의 권말에 「비판(碑板)」과 「책판조(冊板條)」가 있는 곳이 33개 군읍(郡邑)이다.
- 35) 경상도 안동의 지지(地誌)이다. 사본(寫本)으로 1책(9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4장의 「책판조(冊板條)」에 통감(通鑑) 등 33종이 수록되어 있다.
- 36) 소화(昭和) 15(1940)년 정원호(鄭源鎬)에 의해 편찬된 지지(地誌)이다. 연인본(鉛印本)으로 76권 15책으로 경상도 각 군지(郡誌)이다.
- 37) 사본(寫本) 1책으로 경상도 예안의 지지(地誌)이다. 122의 제23-24장의 「책판조(冊板條)」에 『소학언해(小學諺解)』 등 31종이 수록되어 있다.
- 38) 정조년간에 간행된 사본(寫本)으로 우리나라 지역별 지지(地誌)를 합편한 것이다. 원래 29책이 완질이나 영본(零本) 6책만이 남아 있다.

6. 조사된 전적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을 참고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전적 30,467종 중 서지사항이 중복되는 4,436종을 제외한 3,709종을 분석해 본 결과 금속활자가 102종, 목활자가 406종, 목판본이 2,285종, 석인본 181종, 필사본 696종, 신연활자본 34종 등 총 3,709종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대상으로 주제별, 시대별, 판본별, 간행소별, 간행지별로 분석했다.

6.1 주제별 분석

조사된 전적을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의 사부 분류법에 따라 해당하는 주제의 류문을 구분하면 <표 3> 과 같다.

<표 3> 주제별 분석

	주제	종수	계(%)
經	역류	53	1.43
	서류	40	1.08
	시류	23	0.62
	예류	105	2.83
	춘추류	29	0.79
	효경류	1	0.02
	사서류	139	3.74
	소학류	51	1.37
	계	441	11.88
史	정사류	100	2.69
	편년류	8	0.21
	별사류		
	잡사류	77	2.07
	전기류	472	12.72
	보계류	33	0.88
	지리류	33	0.88
	정법류	21	0.56
	금석류		
계	744	20	
子	유가류	248	6.69
	도가류		
	석가류	8	0.22
	병가류	2	0.05
	의가류	39	1.05
	천문산법류	33	0.88
	예술류	56	1.51
	유서류	43	1.16
	계	429	11.56

集	총집류	83	2.24
	별집류	1,961	52.87
	시문평류	51	1.37
	계	2,095	56.5
총계		3,709	100

주제별 분석에서는 경부가 441종으로 11.88%를 차지하고, 사부가 744종으로 20%를, 자부가 429종으로 11.56%, 집부가 2,095종으로 56.5%를 차지하고 있다.

주제별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전체적으로 경사자집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집부의 문집류가 56.5%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후학과 후손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문집을 발간한 다음 각 문중에 반질(頒帙)한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6.2 간행 시대별 분석

조사대상 문헌인 3,709종을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간행된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 와 같다.

<표 4> 간행 시대별 분석

판본별 년대	금속 일차본	목활자본	목판본	필사본	석인본	신식연 활자본	전도활자 본	특인본	비교(%)
14세기			14	1					15(0.4)
15세기	9		12						21(0.56)
16세기	46	12	190	69				1	318(8.57)
17세기	2	15	102	24					143(3.85)
18세기	19	8	236	52					315(8.49)
19세기	19	102	543	58	3				725(19.54)
20세기	11	190	528	36	173	26		1	965(26)
조선말기		55	213	180	1				449(12.1)
조선후기	3	25	338	262			1		629(16.95)
청대			14		1				15(0.4)
미상			94	16	2			2	114(3.07)
계	109	407	2,284	698	180	26	1	4	3,709(100)

전적이 간행된 시대별 분석에서는 서문과 발문의 간행시기를 모두 포함시켰다. 18세기 이전에 간행된 것이 812종으로 2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20세기가 1,690종으로 45.54%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후기, 말기에 간행된 것도 1,070종으로 29.05%를 차지하고 있어 조선후기, 말기에 간행된 전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세로 오면서 출판량이 많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淸

代에 간행된 전적은 모두 중국에서 간행된 전적이다.

6.3 판본별 분석

〈표 5〉 판본별 분석

구분	활자명	종수	비율(%)	비고
금속활자	갑인자	5		
	재주갑인자	4		
	갑진자	5		
	경자자	2		
	병진자	1		
	임진자	4		
	을유자	2		
	을해자	17		
	전사자	2		
	재주정리자	3		
	초주갑인자	19		
	초주정리자	2		
	초주한구자	1		
	한구자	2		
	현종실록자	5		
	후기교서관인서체자	3		
	방갑인자	1		
	방정리자	2		
	방자자	1		
	인서체철활자	1		
	전기예각인서체자	1		
	정리자체철활자	1		
	정유자	16		
희현당철활자	1			
계	101	2.75		
목활자	목활자	378		
	목활자(중간)	1		
	목활자(후쇄)	2		
	갑인자체	1		
	갑진자체훈련도감자	1		
	경자자체훈련도감자	1		
	방갑인자체훈련도감자	8		
	방경오자체훈련도감자	1		
	방병자자	1		
	방병자자체훈련도감자	1		
	방병진자	1		
	방을해자체훈련도감자	4		
	방을해자	1		
	방정리자	1		
	인서체	1		
	춘추강자	1		
	훈련도감자	2		
	계	406	10.95	

목판본	목판본	1,970		
	목판본(중간)	61		
	목판본(후쇄)	144		
	목판본(중국)	51		
	갑인자번각	3		
	계미자번각	2		
	무신자번각	32		
	방갑인자체훈련도감자번각	1		
	방을해자번각	1		
	병진자번각	1		
	생생자번각	1		
	송본번각	1		
	을해자번각	3		
	정리자번각	2		
	정유자번각	19		
	초주갑인자번각	7		
	초주갑인자훈련도감자번각	1		
	훈련도감자번각	1		
	판하본	2		
계	2,303	62.1		
필사본	고본	18		
	수고본	6		
	정고본	16		
	진필본	70		
	초고본	35		
	필사본	534		
	계	679	18.3	
전도활자	전도활자	1		
	계	1	0.02	
탁인본	탁인본	4		
	계	4	0.1	
신연활자본	신연활자본	34		
	계	34	0.92	
석인본	석인본	173		
	석인본(중국)	8		
	계	181	4.88	
합계	3,709	100		

안동지역 전적을 조사한 결과 금속활자본 101종으로 2.75%를 차지하고 있고, 목활자본이 406종으로 10.95%, 목판본이 2,303종으로 62.1%, 필사본이 679종으로 18.3%를 차지하고 있어 판본의 대부분이 목판본 및 필사본으로 확인되었다.

금속활자본에서는 초주갑인자가 19종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이 을해자 17종, 정유자 16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세종년간(1420년대)의 경자자 2종과 현종실록자, 희현당철활자, 초주한구자 및 한구자 등도 발견되었다.

목활자본에서는 일반목활자가 378, 방갑인자체훈련도감자가 8종으로 일반목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춘추강자와 인서체목활자도 발견되었다.

목판본에서는 일반목판본이 1,970종, 목판본 후쇄본이 144종, 목판본 중간본이 61종, 중국 목판본이 51종, 무신자번각본이 32종, 정유자번각본이 19종으로 일반목판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목판본 중에서는 판하본도 2종과 번각본 75종이 발견되었다.

필사본은 679종으로 이중 일반 필사본 534종, 진필본 70종, 초고본 35종 등 진필본과 초고본, 고본은 특히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6.4 간행소별 분석

〈표 6〉 간행소별 분석

간행소	계	비율(%)
관아	109	2.94
서원	98	2.64
사찰	3	0.08
재실	111	2.99
사가	34	0.92
보소	1	0.02
출판사	26	0.7
향교	4	0.11
기타	135	3.64
미상	3,188	85.9
계	3,709	100

간행소별 분석에서는 관아, 서원, 사찰, 재실, 보소, 향교 등에서 활발한 출판활동을 하였으며, 재실이 111종, 관아가 109종, 서원이 98종으로 파악되었으나 간행소 미상인 전적이 3,188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기타인 전적은 간행된 곳은 확인되었으나 간행소는 확인되지 않은 전적들이다. 관아는 경상감영, 교서관, 내각, 규장각, 성균관, 영영(嶺營), 예각, 완영(完營) 등에서 간행된 것이며, 서원은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임천서원, 호계서원, 청송 분강서당 등에서 간행된 것이다.

6.5 간행지별 분석

〈표 7〉 간행지별 분석

도별	시군별	종수	비율(%)
경상북도	경산	3	7.3
	경주	27	
	고령	2	
	군위	7	
	금릉	1	
	달성	7	
	문경	3	
	봉화	8	
	상주	13	
	선산	1	
	성주	9	
	안동	111	
	영양	4	
	영주	21	
	영천	11	
	예천	11	
	의성	11	
	청도	8	
	청송	9	
칠곡	4		
소계	271		
강원도	간성	1	0.13
	강릉	2	
	원성	1	
	평창	1	
	소계	5	
경기도	고양	1	0.05
	안성	1	
	소계	2	
경상남도	거창	3	0.7
	고성	2	
	밀양	3	
	사천	1	
	산청	2	
	진주	6	
	창녕	1	
	하동	1	
	함안	3	
	함양	2	
	합천	2	
	소계	26	
대구		89	2.4
	소계	89	
대전		3	0.08
	소계	3	

도별	시·군별	종수	비율(%)
서울		56	1.51
	소계	56	
전라남도	나주	1	0.1
	순천	2	
	장성	1	
	소계	4	
전라북도	익산	1	0.38
	전주	13	
	소계	14	
충청남도	공주	4	0.16
	논산	1	
	예산	1	
	소계	6	
충청북도	청주	2	0.05
	소계	2	
평안도		1	0.02
	소계	1	
중국		14	0.38
	소계	14	
미상		3,213	86.6
	소계	3,213	
합계		3,709	100

간행지별 분석에서는 경상북도를 분리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3,709종 중 간행지 미상인 전적이 3,213종으로 8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경상북도가 271종으로 7.3%를, 대구가 89종으로 2.4%, 서울이 56종으로 1.51%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각 도에서 출판된 것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이 대구·경북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경상북도 중 안동과 경주에서 간행된 전적이 많았는데 이는 안동의 도산서원을 비롯한 병산, 호계, 사빈, 임천서원 등에서 간행된 전적들이 많았다. 경주에서 간행된 전적은 대부분이 옥산서원에서 간행된 것들이다. 대구에서 간행된 전적의 대부분은 영영(嶺營)에서 간행된 것이고, 전주에서는 완영(完營)에서, 서울에서는 내각, 예각, 성균관 등에서 간행된 전적이 대부분이었다.

7. 맺음말

본 연구는 1991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출판된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중 제5권 1, 2 안동시·군편에 수록된 전적을 대상으로 주제별, 시대별, 판본별, 간행소별, 간행지별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중요한 전적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암 이현보선생 종택 소장본 중 귀중본이 많았다. 『당음비사(棠陰比事)』,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 등이 진귀본이며, 성리설에 관한 전적으로는 『상례비요(常禮備要)』 등과 같은 필사 미간 원고본이 있어 예학(禮學)연구에 가치 있는 전적이다.

박동섭씨 소장본 중 불교서인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대방광원각다라외경(大方廣圓覺多羅儀經)』은 귀중본으로 발간연대가 1464년임이 밝혀졌다. 건강양생법을 기술한 『고치집신도(叩齒集神圖)』는 현대의 요가법을 도면으로 설명한 진귀본이다.

김영탁씨 소장본 중 조리서인 『수운잡방(需雲雜方)』을 위시하여 구급처방 의서인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 『식료찬요(食療纂要)』 등은 가치가 인정되어 그 중 일부는 논문자료로 활용되어 학계에 발표된 것도 있다.

류기운씨의 함벽당(涵碧堂) 소장 전적 중 『화왕산성제현창의록(火旺山城諸賢倡義錄)』, 『다산비방(茶山秘方)』 등의 잡서는 의병사 및 의학 연구와 실학 사상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퇴계선생 종택의 소장본은 도산서원 광명실(光明室) 소장 전적과는 별개의 것으로 종택에 보존되어 있다. 퇴계 선생의 수택본은 주로 광명실에 소장되어 있고, 종택에 소장된 전적은 향중 또는 전국에서 반질된 문집류와 문도가(門徒家), 퇴계학과 후예들이 발간한 서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성리대전서』를 비롯한 당서(唐書) 문학류로는 『당대가한문공문초(唐大家韓文公文抄)』, 『당대가류류주문초(唐大家柳柳州文抄)』와 송서(宋書) 문학류에 『송대가소문충공문초(宋大家蘇文忠公文抄)』, 『송대가구양문충공문초(宋大家歐陽文忠公文抄)』 등 방대한 전적이 소장되어 있다. 희구서로는 『해동속고경중마방(海東續古鏡重磨方)』, 『송계원명이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 『사한일통(史漢一統)』, 『주문작해(朱文酌海)』, 『용사세강록(龍蛇世講錄)』, 『증보참찬전천기대요(增補參贊傳天氣大要)』 등이 소장되어 있다.

광산김씨 예안과 입향조인 김효로(金孝盧) 선생의 종택은 승원각(崇遠閣)을 지어 유물을 보존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전적으로는 『정선동래선생좌씨박의구해(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구해남화경(句解南華眞經)』,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 『청야만집(靑野漫集)』, 『민보집설(民堡輯說)』 등이 희구서로 평가되고 있다. 기타 필사본은 주로 당음(唐音)에 속하는 당송팔대가를 비롯하여 중국 명저를 수사(手寫)한 것으로 과장(科場)에 대비한 준비서로 추정할 수 있겠다.

경류정(慶流亭) 이세준씨 소장본 중 필사본인 『송간선조일기(松澗先祖日記)』

는 소장자의 15대조인 이정회(李庭檜) 선생의 25년간의 일기문이다. 광국원종공신에 서훈된 이정회는 1542년 출생하여 광해 4(1613)년에 졸한 사람으로 일기의 내용은 황성현감 당시부터 임진왜란까지의 7년간의 일기와 임진왜란 8년간의 일기, 그리고 임진왜란 후 10여 년 간의 일기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 임진왜란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보여 진다.

지촌(芝村) 종택 김구직씨 소장 전적의 『대학연의(大學衍義)』, 『변암선생집(樊巖先生集)』, 『주자대전』 등이 귀중본으로 파악되었다.

류영하씨 소장본은 류성룡 선생의 수택본을 비롯하여 귀중본으로는 『홍범황극내편보해(洪範皇極內篇補解)』, 『춘추호씨전』, 『군문등록(軍門騰錄)』, 『속동문선』, 『징비록』 등 필사 원고본과 수 백종에 달하는 류성룡 선생과 관계되는 전적이 소장되어 있다.

그 외 류운룡 선생의 고택인 양진당의 소장본이나 류단하씨의 소장본 등도 귀중한 자료들이다.

첫째, 주제별 분석에서는 경부가 441종으로 11.88%를 차지하고, 사부가 744종으로 20%를, 자부가 429종으로 11.56%, 집부가 2,095종으로 56.5%를 차지하고 있다. 주제별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전체적으로 경사자집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집부의 문집류가 56.5%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후학과 후손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문집을 발간한 때문이 아닌가 보여 진다.

둘째, 간행된 시대별 분석에서는 18세기 이전에 간행된 것이 812종으로 2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20세기가 1,690종으로 45.54%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후기, 말기에 간행된 것도 1,070종으로 29.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세로 오면서 출판량이 많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청대에 간행된 전적은 모두 중국에서 간행된 전적이다.

셋째, 판본별 분석에서는 금속활자본 101종으로 2.75%를 차지하고 있고, 목활자본이 406종으로 10.95%, 목판본이 2,303종으로 62.1%, 필사본이 679종으로 18.3%를 차지하고 있어 판본의 대부분이 목판본 및 필사본으로 확인되었다.

금속활자본에서는 초주갑인자가 19종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이 을해자 17종, 정유자 16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세종년간(1420년대)의 경자자 2종과 현종실록자, 희현당철활자, 초주한구자 및 한구자 등도 발견되었다.

목활자본에서는 일반목활자가 378종, 방갑인자체훈련도갑자가 8종으로 일반목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춘추강자와 인서체목활자도 발견되었다.

목판본에서는 일반목판본이 1,970종, 목판본 후쇄본이 144종, 목판본 중간본이 61종, 중국 목판본이 51종, 무신자변각본이 32종, 정유자변각본이 19종으로 일반목판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목판본 중에서는 판하본도 2종과 번각본 75종이 발견되었다.

필사본은 679종으로 이중 일반 필사본 534종, 진필본 70종, 초고본 35종 등 진필본과 초고본, 고본은 특히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간행소별 분석에서는 관아, 서원, 사찰, 재실, 보소, 향교 등에서 활발한 출판활동을 하였으며, 재실이 111종, 관아가 109종, 서원이 98종으로 파악되었으나 간행소 미상인 전적이 3,188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기타인 전적은 간행된 곳은 확인되었으나 간행소는 확인되지 않은 전적들이다.

다섯째, 간행지별 분석에서는 경상북도를 분리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3,709종 중 간행지 미상인 전적이 3,213종으로 8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경상북도가 271종으로 7.3%를, 대구가 89종으로 2.4%, 서울이 56종으로 1.51%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각 도에서 출판된 것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이 대구·경북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경상북도 중 안동과 경주에서 간행된 전적이 많았는데 이는 안동의 도산서원을 비롯한 병산, 호계, 사빈, 임천서원 등에서 간행된 전적들이 많았다.

안동의 고가(古家)에는 고서와 고문서 등 전적문화재가 많이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전적은 안동문화권의 역사적 배경과 그 문화적 특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문헌자료가 된다. 더구나 국문학, 역사학, 서지학 등 한국학의 체계화와 활발한 연구는 일차적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문기반을 다지는데 정사(正史)나 '정부연대기(政府年代記)'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관찬(官撰)자료 못지않게 지역사회 또는 기층문화(基層文化)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목록자료는 기록 자료의 위치와 현황에 대한 일차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밀한 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단위별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사는 소장된 기록 자료를 망라하는 개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목록작업과 함께, 그것들을 집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영인화 작업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은 흩어지고 없어진 자료가 많다고 보아지며, 그나마 1995년 한국국학진흥원이 설립되어 문중에 소장된 전적과 목판을 수집하고 있어 다행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단행본》

- 金斗鍾 著. 韓國古印刷技術史. - 서울 : 探求堂, 1981.
- 金世漢 著. 漢文學散藁 - 附 安東市·郡 個人所藏 典籍目錄-. 안동 : 안동대학교 출판부, 1991.
- 설석규, 임노직. 경북 북부지방 기록자료의 정리실태와 전망. - 안동 : 한국국학진흥원, 2002.
- 宋志香 編著. 安東鄉土誌. - 안동 : 大星文化社, 1983.
- 安東大學博物館 編. 臨河澗 水沒地域文化財地表面調査報告書. - 안동 : 安東郡, 1986.
- 安東市史編纂委員會 編. 安東市史(1-5). - 안동 : 安東市史編纂委員會, 1999.
- 柳侑坤 編著. 安東史蹟要覽(第1輯). - 안동 : [발행처미상], 1983.
- 윤동원 편저. (안동대학교 도서관 소장) 고서목록(1-2). - 안동 : 안동대학교 도서관, 1994, 2003.
- 尹炳泰 著. 朝鮮後期の 活字와 冊. - 서울 : 범우사, 1992.
- 李樹健 著.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 서울 : 一潮閣, 1995.
- 鄭亨愚, 尹炳泰 共編. 韓國冊板目錄. - 서울 : 保景文化社, 1995.
- 鄭亨愚, 尹炳泰 共編. 韓國冊板目錄總攬. - 서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논문》

- 강혜영, “남원 지역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 조선조를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제32집, 2005.
- 옥영정, “호남지방 목활자본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3.

《Web DB》

- <http://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 <http://k5000.nurimedia.co.kr/intro.asp?Book> 고려사
- <http://k5000.nurimedia.co.kr/intro.asp?Book> 삼국유사
- <http://lib.andong.ac.kr/> 안동대학교 도서관
- <http://www.koreaa2z.com/sil99/> 조선왕조실록
- http://www.nl.go.kr/nl_classics/search/search.php 한국고전적종합목록
- <http://www.encykorea.com/encykorea.ht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